출장결과보고
2009. 6.

# “연해주 경남농장 입지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보고서”

아시아농업연구센터
글로벌협력연구본부

## 1. 출장목적

가. 경남농장 최적 입지 조사

나. 현지 영농 및 물류 비용 조사

다. 현지 농산물 유통실태, 시장상황, 농산물 판로 조사

라. 현지 담당자(농어촌공사 정규상 부장, 동북아평화연대 장민석 소장) 면담

## 2. 출장자, 지역, 기간

### 2.1. 출장자 및 출장기간

| 소속 및 직위 | 출 장 자 | 출장기간 |
|---|---|---|
|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연구위원 | 김경덕 | 2009. 6 . 1(월) ~ 6 .5(금) |
| 글로벌협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이대섭 | |

### 2.2. 출장지역

○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미하일로프스키

## 3. 출장 일정

### 3. 1. 날짜별 방문기관, 방문지역, 주요 일정

| 날 짜 | 방문기관, 지역 | 일 정 |
|---|---|---|
| 6. 1<br>(월) | (인천-블라디보스토크) | (인천 10:00 → 블라디보스토크 14:20 → 우수리스크) |
| | 동북아 평화연대 사무소 | 프림코 농장 장민석 소장과의 면담<br>(현지 상황 협의) |
| 6. 2<br>(화) | 프림코 농장 러시아 연해주 사무소 | 연해주 농장 입지 여건에 관한 협의 |
| | 프림코 농장, 끄레모바, 빠블로프카 지역 농장 및 인근지역 | 경남농장 입지 후보(1안) 조사<br>생산 → 판매 물류시스템 현황 조사 1 |
| 6. 3<br>(수) | 순얏센 농장 영농지역 및 휴경지 | 경남농장 입지 후보(2안) 조사 |
| | 순얏센 농장 인근지역 | 생산 → 판매 물류시스템 현황 조사 2 |
| 6. 4<br>(목) | 노보사친스키 농장 영농지역 및 휴경지 | 경남농장 입지 후보(3안) 조사 |
| | 노보사친스키, 노보니콜스크 인근지역 | 생산 → 판매 물류시스템 현황 조사 3 |
| 6. 5<br>(금) | 아로프리모리에 농장 | 강동원 사장 인터뷰<br>현지조사 종합 및 곡물 저장고 건설 및 영농 비용 추가 조사 |
| | (블라디보스토크-인천) | (블라디보스토크 17:30 → 인천 18:00) |

## 3. 2. 회의 일정

| 일 시 | 참 석 자 | 장 소 |
|---|---|---|
| 6. 2, 10:30~12:00 | 김경덕, 이대섭, 강니콜라이, 장민석, 김승력, 유승호, 강마리나, 박진국, 강동원, 조례바 | 우수리스크 동북아평화연대 사무소 |
| 6. 5, 10:00~12:00 | 김경덕, 이대섭, 강니콜라이, 장민석, 김승력, 유승호, 강마리나, 정규상, 강동원, 박진국 | 우수리스크 동북아평화연대 사무소 |

## 4. 주요 내용

### 4.1. 기관방문 및 면담 결과

#### 4.1.1. 프림코 농장

○ 프림코 농장은 동북아 평화연대가 고려합섬의 부도 농장의 700ha를 인수하면서 시발점이 되었고 이후 800ha 정도의 개인소유 농지인 파이를 인수하면서 농장규모를 확장한 농장임. 하지만 수직배수의 문제가 있는 농지를 제외하면 실제 경작할 수 있는 농지는 약 1000ha도 안됨. 또한 농기계 및 농장 부대시설물(곡물 저장고, 계근대, 종자 저장고 등)이 낙후되어 추가 투자가 절실한 농장임. 따라서 현지 생산하는 콩을 1차가공하여 청국장 재료형태로 국내에 반입하여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 또한 약 20년 동안 휴경지였던 85ha를 개간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개간된 농지에 콩을 파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이 농장의 장점은 영농에 적합한 농지 위치가 주요 도로 및 철도 정류장에 인접하여 곡물 운송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콩은 1) 국내 반입시 관세가 높아 경제성이 없고, 2) 껍질에 반입금지 박테리아가 존재하여 세척이 필요한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량 우

수리스크 대두유공장에 판매함. 대두유공장의 수매가격이 기타 판매처와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스리스크지역외의 판매처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면 물류시스템 접근이 용이하여 높은 가격으로 수확물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 기타지역의 농장들과 비교하여 물류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 해외농업개발 융자프로그램에 참가하여 10억 원의 융자신청 중 5억 원이 심사에 통과하였지만 담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체적인 자금력이 미약함. 그러나 그 동안의 연해주 지역에서의 영농관련 노하우가 축적되어 2008년에는 보유하고 있는 낙후된 시설을 기반으로도 순수익을 도출할 만큼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음. 따라서 자금동원력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 및 부대시설(저장시설 및 곡물 정선기)등이 현대화 된다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목표로 영농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체계적인 영농 일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임.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영농 가능한 휴경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가용할 수 있는 농기계사용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고 고용된 농기계 기술 인력의 농번기 활용도를 높여 생산성은 물론 수익성을 증가시키고자 함.

4.1.2. 끄레모바, 빠블로프카 지역 휴경지

○ 끄레모바 지역은 구 소련의 솝호즈(집단농장)형태의 영농지로 1000ha 규모의 휴경지임.

-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영농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현재까지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지만 소유권 등기는 구축된 농지임.
- 하지만 휴경지의 중앙부분에 냇가(개천)가 흐르고 있어 자연재해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음.
-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재방이나 기타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비용이 과대하게 지출될 수 있음.

- 또한 지형이 낮아 겨울철에 내린 눈이 녹으면서 파종시기에 관개배수(수직배수)가 문제시되고 있어 영농 입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빠블로프카 지역

- 탄광과 인접한 지역으로 약 700ha의 휴경지가 존재하며 인근 개인소유경지(파이)를 포함하면 약 1000ha정도의 경작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임.
- 석탄을 운송하기 위한 간선 및 본선 철로와 근접한 지역이므로 러시아 전역으로의 곡물 운송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장점이 있음.
- 하지만 영농면적이 경상남도에서 원하는 규모보다 협소하며 오랜 기간 동안 석탄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탄광지역으로 지하수 및 토지오염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단점이 있음.

4.1.3. 순얏센 농장

○ 순얏센 농장 지역은 구 소련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로 현재 러시아 현지인 소유 농장임. 경지면적은 약 3500ha로 현재 경작 중인 농지는 약 1500ha이며 경지가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농기계 이동 및 영농활동이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2009년에는 콩, 밀, 옥수수를 파종하였고 재배하고 있음. 하지만 영농규모에 비해 고용인이 약 100명으로 너무 많아 경상남도가 인수 및 투자시에는 고용승계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 소유주는 경지매매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며, 합작관계를 구축하여 영농규모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음.
- 경지가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장점과 더불어 집단농장형태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3500ha 중 상대적으로 수직배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저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지가 경작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었다는 장점이 있음.

4.1.4. 길훈건설 소유 농지

○ 이 지역은 한국의 길훈건설이 영농목적으로 인수하였지만 그 후 영농활동이

이루어지지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지임. 또한 러시아 현지인을 대리인으로 등기를 완료한 지역이며, 이 지역의 장점은 철도와 육로가 근접하여 있고 프림코 농장 등 주변의 농장들과 인접하여 있어 협력 영농(농자재, 시비, 파종 등)이 가능한 지역임.

- 현지에서는 길훈건설의 1000ha, 주변지역의 농지(파이를 포함한 정부소유지 임대)를 포함하면 2500ha 정도는 임대 또는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지역임.
- 하지만 영농시설 및 영농에 필요한 설비(저장고 및 부대시설)가 전무하여 초기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농지임.
- 하지만 현재 연해주 경지에 투자되는 한국자본이 과대하여 토지이용료 및 토지가격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고 러시아 지방정부, 현지 부동산 업자 및 중개업자등에 비공식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토지현황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을 임대 또는 인수하는 것이 최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경남이 직접 영농에 관련된 제반시설을 구축해야하며, 현지 영농관련 제도 및 러시아 영농관련법, 그리고 법인설립 및 기타 수반되는 법적인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하여 정상적인 영농법인 설립이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동북아 평화연대와 같은 연해주 현지 사정에 밝고 현지 영농에 노하우가 축적된 조직과 합작관계형태로 길훈건설 소유의 경지를 인수 및 임대, 주변 파이농지 및 정부 농지를 추가로 인수 및 임대하여 규모의 확장을 꾀하여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4.1.5. 아로 프리모리에(강동원 사장 면담)

- 현재 농장의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그 일환으로 낙후된 계근대를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할 계획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미곡 RPC 건설 전문업체인 한국 대구에 소재한 영일기업에 의뢰 자동화 곡물 사일로 500톤 규모 10대를 건설 중임.

- 자동화 저장시설의 투자규모는 25억 원으로 우수리스크 시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 및 부시장이 방문하여 공사 현황을 살피기도 하였음. 이에 따라 시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다고 함.
- 자동화 곡물 사일로 건설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곡물의 수확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되고 유실되는 비율이 낙후된 시설로 인하여 경제성을 대폭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 임. 또한 종자사업을 중점적으로 생산 및 판매까지 일괄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기 때문에 현대화된 저장 사일로가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투자비용이 25억 원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훨씬 경제적이라는 판단하고 있음.
- 건설에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 중 골재, 모래, 시멘트만을 러시아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고 필요한 기술인력은 한국기업에서 공급하고 있고 장비 및 자재 또한 한국에서 수입하여 건설하고 있음.
- 향후 러시아 현지 고용인력의 영농활동에 따른 복지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친밀히 구축하고자함은 필수적인 경영요소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음.
- 또한 한국정부와의 유대적인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소립자인 대두종자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립자로 대두 종자를 계량하는 지원이 필요함.
- 더불어 한국형 농기계는 조방농업을 하는 러시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농지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이 선행되어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러시아 시장진출을 고려해야함.